



곤충산업으로 농가 소득 올린다!

- ‘유용곤충 상품화 전략 마련’ 현장 토론회 -

농촌진흥청(이수화 청장) 유용곤충과는 곤충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요창출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8일(월) 오후 2시 충남 부여 곤충농가에서 “유용곤충 상품화 전략마련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곤충사육농가는 50여종의 곤충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230여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연간 소득 110억원 규모의 틈새농업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 유용곤충은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지정되어, 1인당 약 1,950만원(장수풍뎅이), 전업1농가당 약 4,650만원(왕귀뚜라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곤충사육농가와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배성 박사가 ‘국민협력의 대표인 부여에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곤충이 농업·농촌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 한국관상어협회 배문석 전무가 ‘곤충산업의 현황과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주)선유 이상현 대표가 ‘비수기가 없는 1년 365일의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곤충산업시장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분야의 생물자원으로서 곤충의 활용실태,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 곤충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곤충은 양잠과 양봉 그리고 일부 약용으로 이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반딧불이 등이 자연생태학습용과 애완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천적용 및 화분매개용 곤충시장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곤충으로부터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식품 또는 약제로 개발하는 분야,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여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분야,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정화하는 환경정화 분야,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등 지역행사 소재로 이용하는 분야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국곤충자원연구회 설광열 회장은 “곤충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곤충의 안정적 생산에 의한 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축산법에 가축으로 규정)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 유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곤충자원연구회 집행부에 곤충사육농가발전위원회, 곤충생태학교발전위원회 및 곤충유통구조개선위원회를 두어 곤충이 현장 견학과 농촌어메니티 관광자원 등의 분야에 접목되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유용곤충과 최영철 과장은 “곤충농업 역시 수요창출과 판매 마케팅 전략이 사육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정성을 다해 사육한 유용곤충이 법적 지위 확보, 원활한 유통구조 및 다양한 곤충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까지 연계된다면, 곤충사육농가들이 판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곤충 기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 부여 곤충나라는 선도적인 곤충농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부여 반산권역 저수지 주변지역 5개 마을을 중심으로 곤충테마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현재 도시민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